

글로벌 사회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 방안 연구

김다원*

A Study on the Complementary Composition of Primary Geography Curriculum for Objective Recognition of Global Society

Dawon Kim*

요약: 오늘날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가 가져온 빠른 사회변화에 맞춰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식의 업데이트를 요구하며,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발전 이전의 부정적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긍정적 시각을 갖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민성을 요구한다. 특히, 글로벌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 역할을 갖고 있는 지리교육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실행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민성 교육의 방법으로 객관적 인식을 키워주는 교육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로서 네 가지의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보탐색 방법의 다양화와 활성화이다. 둘째, 사회 변화와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한 내용 구성이다. 셋째, 지역의 범주화 방식에 대한 재고 및 논의이다. 넷째,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탐구과제의 적용이다.
주요어 : 객관적 인식, 글로벌 사회, 시민적 책무, 지리교육과정, 초등 지리교육

Abstract : Today students should update their knowledge of the global society in line with the rapid social change brought about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nd they need to overcome the social problems that come from seeing society through stereotypes, prejudices, and negative perspectives and have positive perspectives. Therefore, education that fosters objective recognition has educational values and needs. In particular, interest and educational implementation in geographic education, which plays a key role in understanding global society, are urgent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complementary composition of the geography curriculum to develop objective recognition in geography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organization of geography curriculum for objective recognition was proposed in four ways: First, it is the diversification and ac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utilization methods. Second, it is a content composition that reflects social change and current social appearance. Third, it is a discussion of how to categorize regions. Fourth, it is the application of exploration tasks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skills.

Key Words : Objective recognition, Global society, Citizen responsibility, Geography curriculum, Primary geography education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veritas2@gnue.ac.kr)

I. 연구 배경 및 목적

초, 중, 고등학교 지리수업은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의 변화상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까? 글로벌 사회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글로벌 사회의 다양성은 커지고 복잡성은 심해지고 있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고장, 국가, 세계 등 글로벌 사회를 인식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리교육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 사회과교육의 목표인 민주 시민은 무엇보다도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시민의 자질의 바탕에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범위가 더 확장되고 상호교류는 더 적극적이고 글로벌 사회 내 다양성과 복잡성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명의 발달은 물리적 세계의 확대뿐 아니라 가상 세계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개인의 경험과 생활 범위를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가상 세계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글로벌 사회를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는 정보화교육뿐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정보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이끌어가는 지리교육의 역할이 기대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류재명(2000)은 앞으로 지리교육은 학습자의 21세기 삶의 질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21세기 사회에는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상품 등장, 새로운 사회 현상과 사회문제 등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역할과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뒤따른다. 그간 교육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 학습자가 스스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Alock(2019)은 이러한 환경에서 지리는 세계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교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세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Standish(2020)는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여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인식과 관점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사회를 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글로벌 시각과 감각을 키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력을 키워서 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바비 더피(Duffy, 2018; 김하연 역, 2019)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며 잘못된 인식과 편견, 고정관념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인식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은 기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부정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두며 다수를 모방하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TV, SNS 등 온라인 소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에서는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하나는 정보 수집자의 입장에서 수집한 정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정보에의 접근자는 보고 싶은 정보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는 오히려 고정관념을 더 강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고정관념과 편견, 부정적 측면 중심의 인식을 극복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사회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Betty(1988, 강순원 역, 2021)는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다른 지역 및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에 대해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평화, 인권, 생태적 생각 등은 모두 글로벌 시민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글로벌 시민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가능한 가치임을 주장한다.

지리교육에서도 글로벌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필요성을 논의한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김다원·한진수

(2012)는 초·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아프리카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일반화와 단순화로 인해 아프리카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고정관념과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아프리카의 실제 모습을 보거나 떠올릴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민성(2013)은 세계화 상황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대해 내전, 기아, 빈곤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객관적으로 르완다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르완다의 역동적인 경제 개발 노력, 다양한 자연환경, 쾌적한 기후, 한국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지리교육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다. 조성욱(2018)은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지리교육에서 부정적 인식을 객관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에서는 과거의 식민지 대상 지역으로 역사적 측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지리적 환경의 객관적 측면에서 접근, 자연환경, 경제, 인구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서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그간 갖고 있던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 해결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 학습에서 객관적 인식에 기반한 학습의 필요성과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오개념, 부정적 인식, 고정관념과 편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초등 지리교육에서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리교육과정 내용 구성 관련해서 객관적 인식 교육을 위한 논의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리교육에서 글로벌 사회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현실적인 글로벌 감각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교육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객관적 인식 교육은 지리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뤄졌을 때, 학습자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성과 주관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리적인 사고력을 키워가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인식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리교육 방안을 찾고, 현행 초등 사회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를 고찰할 것이며, 이에 의거해서 초등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객관적 인식과 지리교육

1. 객관적 인식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객관’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 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으로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이명현(1987)은 ‘객관은 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물의 관점에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타인의 관점에서 보거나 사물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는 ‘객관성’을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성질을 통칭하는 말, 누가 의식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성질, 즉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간주관적으로 인식된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객관적’이라 함은 ‘실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람들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관련하여 강영안(2014:143)은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첫째, 실재성, 둘째, 상호주관성, 셋째, 근거에 기반한 합리성이다. 실재성은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대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주관성은 실재하는 문제상황과 사실, 사태 등에 대해 나와 타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 간의 논의,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정당성을 얻은 것이다. 합리성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한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Brownhill(1983, 김인용·김희용 역, 2013)은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인과 독립적인 하나의 실재(reality)와 관련을 가져야 한다. 실재는 어떤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재와 믿음이 같을 때 그 믿음은 옳은 것이다. 둘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는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며, 검증이 가능한 믿음이어야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은 믿음이 검증받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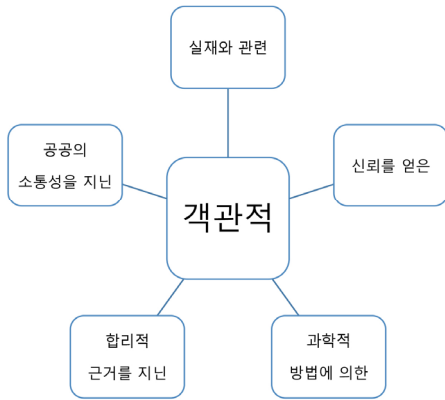


그림 1. '객관적'의 조건

째는 과학적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디어, 지식, 이론 등은 객관적이다. 이러한 아이디어, 지식, 이론은 개인의 감각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이다. 넷째는 객관적 이론은 고유의 독립적인 지위와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론이 독립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감각적 경험과는 독립적인 확고하고 체계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뭔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논리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 지식은 공공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개인적 상황에 의존이 아니라 독립적 형식을 갖고 있는 공적인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Brownhill(1983, 김인용·김희용 역, 2013)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객관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재에 기반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은 결과이며, 개인적 감각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그림 1).

교육에서 객관적 인식의 가치를 살펴보자. 먼저, 사회의 객관적인 실재를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글로벌 사회에는 관찰 가능한 현상과 경험 가능한 일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 가능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저기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지리적 질문이 가능하며 그러한 질문에 응답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객관적 인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객관적 인식으로 얻은 지식과 이해는 인간의 사고와 판단, 행동을 포괄하는 인간의 능력으

로 인간의 삶이 작동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다(장사형, 1987). 개인의 삶은 사회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사람들 간 상호작용으로 형성한 것 그리고 사회의 바탕이 되는 실제적인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객관적 인식은 사회 안에서 개인의 삶을 향유하고 사회 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교육에서 중요함을 지닌다 하겠다. 셋째, 객관적 인식은 인간 삶에서 이뤄지는 소통에서 갖춰져야 할 '지적인 미덕'으로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지적인 의무'이다(강영안, 2014). 객관적 인식은 사회의 실재와 사회 구성원이 만든 지식과 가치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인식으로 획득한 내면화된 가치와 태도, 그리고 지식은 공적인 소통의 도구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넷째, 무엇보다도 세계화, 정보화가 가져온 빠른 사회변화에 맞춰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식의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과거의 사회에 정형화된 지식과 안목으로는 현실 사회를 파악하여 소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아가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발전 이전의 부정적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글로벌 사회에 대한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하 하겠다.

오늘날 사람들 간의 소통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서를 통해서 또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소통하는 방식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소통한다. 온라인에서는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는 개인이 접근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뤄진다. 개인이 접근하는 사이트는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인식에 기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접하는 정보는 배경 설명과 해석이 충실한 텍스트 정보보다는 영상정보이거나 간략한 설명에 포함된 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접근자의 개인적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자들은 이미지를 볼 때 글자를 읽을 때보다 비판적인 추론 능력이 덜 작용한다는 실험결과를 보여준다(Trafton, 2014; Duffy, 2018; 김하연 역, 2019:255에서 재인용). 다른 지역과 문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많은 경우 사실 보다는 상상하는 주체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재현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다원·한건수, 2012).

글로벌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며 글로벌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글로벌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보인다(조성욱, 2018; 이경한, 2020).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물리적 거리 면에서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면,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가뭄, 기아, 정치적 불안, 해적 등의 부정적 뉴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의 제한성 등 제한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내용 등을 주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조성욱, 2018).

Brownhill(1983, 김인용·김희용 역, 2013)은 진실성이 없다면 공동체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고 하였다. 교육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고 교육의 중요한 과업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직성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과 집단이 갖고 있는 인식체계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이것이 객관적 인식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시민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지리교육에서 객관적 인식 교육의 방법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의 내용은 고장, 지역, 국가, 세계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탄력적 환경확대법의 유연한 적용을 권하면서도 우리고장, 우리지역, 국가, 세계의 환경확대적 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고장, 지역, 국가, 세계의 모든 곳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는 없을 지라도 주요 장소와 지역, 우리나라, 이웃 국가, 관계 깊은 국가의 기초적인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소와 지역, 국가에 대한 학습은 궁극적으로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우호적 관계 형성,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 형성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에 목적을 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서 사회환경을 적실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력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보활용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보활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보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로 문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활용은 충분히 잘 이용함'이다(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정보활용은 실재하는 자료와 관련 지식을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는 실재하는 자료 및 관련 지식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실재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활용하여 탐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학습은 객관적으로 사회를 인식하는 데 유익성을 지닌다 하겠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핵심 역량으로 '정보 활용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사회적 사실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량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많은 양의 정보를 불러오고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읽어내고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정보활용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Varian 교수는 정보활용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Manyinka and Varian, 2009).

앞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고, 가치를 추출하고, 시각화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전문가 수준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육 수준에서도 향후 수십 년 동안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료이며 어디에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정보활용은 지리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공간적 패턴의 인식, 기술, 분석의 경험을 제공하여 지리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종원,

2011). GIS, 영상지도, 지도, 그래프, 현장 답사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최근의 증강현실(AR), 가상 현실(VR), 확장 현실(XR) 체험 기술 등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실제처럼 경험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 및 이슈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Liu and Zhu(2008, 이종원, 2011:383에서 재인용)은 정보기술을 진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학습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GIS, 지도, 그래프, 현장답사, 증강현실 등의 기술은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기술의 획득과 활용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리교과에서 정보 활용을 통한 객관적 인식 교육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둘째, 잘못된 범주화에 따른 일반화 오류를 극복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범주화하고 범주화에 따라 일반화 결과를 도출한다. 범주화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일반화는 지식의 틀을 제공한다(Rosling *et al.*, 2018; 이창신 역, 2020). 그래서 범주화와 일반화는 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할 수 있다. 관련하여 (Rosling *et al.*, 2018; 이창신 역, 2020)는 실제로 다른 장소, 지역, 국가 그리고 지물이나 현상 등을 잘못 묶을 수 있고 같은 범주에 속한 내용물에 대해서도 속성이 다르지만 모두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구획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표성을 갖지 않은 일부 드러난 속성과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속한 범주의 전체 속성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즉, 잘못된 범주화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지리는 지역구분의 방식으로 범주화 방법을 사용한다. 지형, 기후, 문화,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가와 세계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을 서술하는 데 주력한다.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에 의거한 지역 구분 방식은 객관성과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자연환경은 가시적이고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며 변

화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와 경제활동 등의 인문환경에 의한 지역 구분은 객관적인 명확성을 보여주기 어려울뿐더러 지속성 또한 짧다.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경제활동은 거주지별로 지역 주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문화와 경제활동 양상이 특별한 함을 지닐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비해 변화의 속도도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문화, 경제활동 등 인문환경에 의거한 지역구분 방식에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과 대표적 속성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성이 짧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 구분의 재설정 필요하다. 최신 자료에 의해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주화와 일반화의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는 오늘날 다문화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 사회에 들어온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문화를 학습하게 하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이주민 국가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국가 문화에 대해 교육한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도 56개의 주요 민족들이 분포되어 있고 넓은 영토 안에서 다양한 환경을 토대로 형성한 생활문화들이 다양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표 문화를 교육한다고 할 때, 어떤 문화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교육에서 주요 학습내용으로 선정된 문화는 일부 전통문화에 한정하였음에도 대표적인 문화로 교육되고 나아가서 모든 중국인들은 그러한 문화 안에서 생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변화와 현재의 생활모습을 살펴야 한다. 지역의 사회와 문화, 경제활동은 변화의 속도가 다를지라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현상은 사회와 문화의 변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 과거의 후진국/개발도상국에 속했던 국가들이 현재도 이 범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딜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성을 살펴볼 때는 지역의 변화상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고정된 문화, 사회, 경제수준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것이다. 특히, 지리수업에서는 지역성 파악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성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향

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리 수업이 필요하다(Alock, 2019:118).

관련하여 Rosling *et al.*(2018, 이창신 역, 2020:255-261)는 변화에 기반한 세상 파악을 위해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찾고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사회에 대한 지식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의거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초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변화한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사실과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변화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성취를 듣고 살펴보는 것은 지리학의 본질에 해당한다(Standish, 2018:213).

넷째, 비판적 사고의 활용이다. 교육심리학회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필연적으로 그 성격상 평가적이다. 정확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비슷한 사고 개념으로 반성적 사고를 들 수 있다. 듀이는 반성적 사고는 ‘어떤 믿음이나 소위 지식의 형태에 대해 지지하는 근거와 가져올 결과에 비취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으로 제시한다(Dewey, 1910; 정희옥 역, 2011:9). 비판적 사고는 대상의 정확성을 근거에 의거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인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정보를 읽거나 듣는 데서 발원하지만 정보에 대한 해석 및 판단과 관련된 사고방식 때문이기도 한다(Duffy, 2018; 김하연 역, 2019). 오늘날에는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접하거나 획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오프라인에서 정보획득은 도서관 대화를 통한 방식에 비해서 단편적인 정보가 많아서 개인이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보 접근은 개인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의 취사 선택과 해석에서 개인의 역할이 크다 하겠다. 이는 우리의 현실 인식에서 무비판적인 그리고 제한된 인식의 위험성을 예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력 함양은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Duffy, 2018; 김하연 역, 2019).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포함하였다. 이는 지리를 포함한 사회과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관련되어 있다. 민주시민으로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

하여 객관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과 지리수업에서는 객관적인 자연환경 자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근거와 기준에 의해 분석, 평가,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지리적 현상과 문제를 포함한다. 그런데 교실 수업에서는 교사의 중립적 입지, 교과서 서술 내용에서 객관적 사실 중심 내용 서술, 학생들의 근거에 기반한 의견 제시와 토의 등이 쉽지 않은 장면이 나타난다(송연근·정혜정, 2012). 이러한 방식의 지속적 수업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객관적 인식에 의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력을 갖추게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각종의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여 일반화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리 탐구학습에서 필요한 인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사실은 ‘다른 사실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Roberts, 2013; 이종원 역, 2016:33). 지리적 사실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또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험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지식으로 구성되고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장소감, 장소성, 지역성, 국가 이해 등의 모든 학습은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서 이러한 비판적 인지활동을 거쳐서 객관적 지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 비판적 인지활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III.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객관적 인식 교육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초등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 인식을 위한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글로벌 사회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던 정보활용 면, 지역단위 생활모습 면, 지역의 범주화와 일반화 면, 비판적 고찰의 활용 면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3·4학년 군 사회 3-1, 3-2, 4-1, 4-2와 5·6학년 군 사회 5-1, 6-2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의거해서 서술한 교과서 서술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용에서 발췌하여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였다.

1. 정보활용 내용 구성 면

현행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정보활용을 위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보통의 학교 급별 시간 편제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대단원은 3·4학년 군 사회에서는 학기 별로 하나를 학습하고, 5·6학년 군 사회에서는 2개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학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 4학년에서는 ‘우리 지역’, 5학년에서는 ‘국토’, 6학년에서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학습한다. 3학년 1학기 대단원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 고장의 지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4학년 1학기 대단원 첫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지도 활용하여 지리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지리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5학년 1학기 대단원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지도 활용하여 국토의 위치, 지역구분, 주요 도시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

용’을 제시한다. 6학년 2학기 대단원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는 ‘지도와 지구분을 활용하여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대륙과 대양,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표 1).

대단원 별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 정보 탐색 방법을 학습하고, 정보탐색 방법을 활용하여 장소와 지역, 국토, 세계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학생들이 미리 장소, 지역, 국토, 세계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찾고, 이에 의거해서 장소와 지역, 국토,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게 하는 데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에 대한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지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지리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한 지리 정보에 의거해서 장소, 지역, 국가,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내용 구성은 학습자들의 객관적 인식 체계 형성에 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성취기준에 제시된 지리 정보 탐색 및 정보

표 1.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의 정보활용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정보활용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4사01-02]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백지 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또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고장을 살펴봅시다. •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고장의 주요 장소를 살펴봅시다.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4사03-01]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살펴봅시다. • 우리 생활에서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5·6 학년 군	(1) 국토와 우리 생활	[6사01-01]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 [6사01-02]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시·도 단위 행정구역 및 주요 도시들의 위치 특성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 자연환경에 따라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6사07-01] 세계지도, 지구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6사07-02] 여러 시각 및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정보가 담긴 자료들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정보를 찾아보며 자료의 활용법을 익혀 봅시다. •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자료 : 교육부, 2015; 교육부, 2018a; 2018c; 2019a; 2019b.

활용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먼저 3·4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단원의 교과서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고장을 살펴 봅시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고장의 주요 장소를 살펴봅시다.’ 등의 학습 주제를 설정하였다. 3·4학년 군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5·6학년 군의 (1) 국토와 우리생활,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대단원 학습에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지역 지리정보 살펴보기, 우리나라의 위치, 영역, 행정구역, 세계의 주요 지형, 국가 등을 지도로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의거해서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처럼 대단원 앞부분에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고장, 우리지역, 국토, 세계의 지리 정보를 찾고,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대단원 앞부분에서 지도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활용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찾고 활용한 지리학습이 단원 전체 내용 학습에서도 적절하게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활용을 위한 주요 매체를 지도에 한정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지리교육에서 논의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지역단위 생활모습 내용 구성 면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현재의 모습 및 현상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변화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장소와 지역 단위의 생활모습 변화 관련 내용(표 2),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의 변화 내용(표 3)이다. 3·4학년 군 사회 교육과정 대단원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중단원에 제시된 성취기준에는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 변화를 파악하도록 하는 학습 내용이다.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과정에 따라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내용이다.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변화의 관점에서 파악

표 2. 장소, 지역 단위 생활모습 변화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변화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4사01-05]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모습을 알아봅시다 •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모습을 알아봅시다

자료 : 교육부, 2015; 교육부, 2018a.

표 3. 일반적인 사회현상 변화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변화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4사04-05] 사회 변화(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봅시다
5·6 학년 군	(1) 국토와 우리 생활	[6사01-05]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및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와 도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6사01-06]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교통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인구 구성 변화를 살펴봅시다 •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 •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료 : 교육부, 2015; 교육부, 2018d; 2019a.

하고 현재의 생활모습을 과거에서 미래로 전개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인식 체계 형성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4학년 군 대단원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의 성취기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사회 변화로 나타난 일상 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5·6학년 군 영역 대단원 (1) 국토와 우리 생활 <국토의 인문환경> 중단원에 제시된 성취기준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 및 구조의 변화와 도시 발달 과정,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 도시, 산업,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게 하는 내용이다. 특정 장소와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변화상을 살펴보게 하는 내용이다.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3·4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중단원의 내용에서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등의 주제를 설정하여 교통의 변화와 통신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관계 지어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6학년 군 (1) 국토와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등 인구 구성, 도시 발달, 산업 발달, 인문환경 변화의 과정

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왜 변화했는지,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는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학습이 이뤄질 수 있게 변화 내용, 원인, 현재의 변화 결과를 연계하여 서술해 줄 필요가 있다. 변화에 따른 결과 학습으로 현재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미래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여 살펴보는 논리적 사고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 배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지역의 범주화와 일반화 내용 구성 면

초등 지리교육에서 범주화는 주로 지역 구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소, 지역에 대한 범주화와 관련된 부분은 3·4학년 군 영역에서는 대단원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5·6학년 군에서는 대단원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성취기준을 살펴본다(표 4).

먼저, 3·4학년 군 <환경에 따라 다른 생활모습> 중단원의 성취기준에는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내용이 있다. 즉,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모습을 비교, 탐구하는 내용이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모습 비교 학습은 자칫 고장별로 정형화된 의식주 생활모습을 학습하게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적으로 오

표 4. 2015개정사회교육과정의 범주화, 일반화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범주화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4사02-02]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을 비교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 우리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4사04-01]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5·6 학년 군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6사07-06] 이웃 나라들(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살펴봅시다.

늘날과 같은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서 고장별 의식주 비교는 어려울 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인식의 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모습의 다양성을 환경과의 관계적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식주 생활 모습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고장의 전통 문화 및 개인의 취향과 외부 문화의 영향도 또한 많이 받는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하여 장소 안에서 또는 지역 안에서 생활모습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환경과의 관계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고장별 의식주의 정형화된 인식은 고장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고장별 문화의 무변동, 고정성 인식을 초래하여 고장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3-4학년 군 사회 대단원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 중단원의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학습에서는 정주공간을 크게 촌락과 도시로 이분화하여 각각의 정주공간들을 살펴보게 하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교 분석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촌락과 도시 안에는 많은 마을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도시 같은 촌락, 촌락같은 도시 등도 있다. 실제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촌락과 도시를 이분화하여 각각의 정주공간을 일반화하는 것은 마을별로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 경제활동, 주민들의 생활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구분된 공간이며 변화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5-6학년 군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성취기준에 제시된 ‘이웃 나라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부분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은 한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두드러진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무엇을 선정, 제시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자연적, 인문적 특성은 학생들에게 해당 국가를 규정하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대단원에서는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식생활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등 고장 간 의식주

생활을 비교해보는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의생활에서는 우리고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의 긴 옷과 머리 천, 베트남의 하노이의 긴 옷과 야자 잎 모자, 캐나다의 누나부트의 털과 가죽옷, 페루 쿠스코의 판초 등 기후환경 및 전통 문화적 특성을 지닌 의복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식생활에서는 국내의 지역 음식으로 평양냉면, 감자송편, 간고등어, 옥돔구이, 전주비빔밥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중심으로 고장 간 식생활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생활에서는 터돋움 집, 우데기, 돌담집, 러시아 이즈바, 캄보디아 수상가옥, 터키 동굴집 등 기후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만든 전통적인 가옥들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대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모습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교과서의 의식주 생활모습을 비교하는 내용 구성이 장소나 지역 단위 의식주 생활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환경에 의해 발달한 특별한 의식주 생활을 선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를 범주로 하여 의식주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식주 생활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단원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주제를 설정하여 도시와 촌락을 각각의 범주로 하여 전라남도 해남군과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외적 경관에서 건물의 모양, 사람들의 수, 하는 일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비교하기 내용을 구성하였다. 촌락과 도시를 범주로 하여 비교하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5-6학년 군 ‘(7)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봅시다.’ 주제를 설정하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을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관계 깊은 국가를 선정하여 지리정보를 조사해보는 활동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인문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 제시하지는 않았다.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바 ‘이웃 나라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에서 인문적 특성을 교과서 내용구성에서는 생략한 상태이다.

장소 및 지역, 국가에 대한 학습 그리고 장소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비교 학습을 위해서는 명료한 준거에 의거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의식주 생활 비교에서처럼 특정 생활 모습에 대한 비교에서는 넓은 고장, 지역, 국가 간 비교 보다는 환경에 따른 생활 모습 간의 비교가 더 객관적 인식에 기여할 것이다. 명확한 준거 없이 고장 간, 지역 간, 국가 간 비교는 그 안에 내재된 다양성을 간과하여 왜곡된 일반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4. 비판적 고찰의 활용 내용 구성 면

앞에서 제시한 정보활용, 범주화와 일반화 오류 극복, 변화와 현재 생활모습 반영 등에는 모두 비판적 고찰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면에서 비판적 고찰 활동이 포함되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내용을 살펴 보았다.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군 사회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의 촌락과 도시 비교하기, 문제점과 해결방안 탐색하기, <사회변화와 문화 다양성> 중단원의 사회변화 분석하기, 사회변화에 따른 편견과 차별 등 문제 분석하기, 다른 문화 존중하기, 5·6학년 군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안 탐색하기, <지속가능한 지구촌> 중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에 참여하기 등의 성취기준에서 비판적 고찰의 학생활동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표 5).

교과서 서술 내용을 보면, <촌락과 도시의 생활모습>의 촌락과 도시 비교하기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학습주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교육부, 2018d:24).

표 5.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의 비판적 고찰 활용 관련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

학년	대단원	비판적 고찰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학습주제 제시
3·4 학년 군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4사04-01]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4사04-05] 사회 변화(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5·6 학년 군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촌>	[6사08-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6사08-04]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촌락과 도시의 비교 보고서

- 공통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 차이점: 촌락에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다.
촌락보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는 ‘촌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등 촌락과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촌락과 도시의 비교하기와 문제점 해결에서는 비판적 고찰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수업을 재구성하는 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행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6학년 군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대단원의 교과서 내용에서는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조사해봅시다.'에서 비판적 고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주제명이 '~을 알아봅시다.'로 제시되어 있어서 교사가 비판적 고찰이 이뤄질 수 있는 학습과제를 제시한 특별한 수업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정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학습이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한 타당한 기준 설정하기, 살기 좋은 촌락과 도시 만들기 및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의 원인 및 문제의 사태 파악하기 등의 활동 내용이 포함된다면 비판적 고찰에 기반한 학습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비판적 고찰 활동과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과제해결이 이뤄졌을 때 학생들은 객관적 인식체계 형성에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문화 수용보다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뤄졌을 때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존중감을 키워 갈 수 있다(Standish, 2012; 김다원 역, 2020).

또한, 교과서에서는 표 5에 제시된 대단원의 성취기준의 내용 서술에서 '~을 알아봅시다.' 서술형을 많이 사용하였다. 수업에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비판적 고찰이 이뤄질 수 있게 수업 주제를 따로 설정하여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본 내용 학습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고찰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 입장에서 비판적 고찰과 비판적 사

고력을 활용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활동 과제를 설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IV. 글로벌 사회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보완적 구성안 제안

1. 정보탐색 방법의 다양화와 활용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기별 대단원의 앞부분에서 지도를 활용한 정보 탐색, 탐색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하도록 구성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내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원의 앞부분에서 영상지도 활용, 일반 지도 활용, 세계지도 활용 등의 활용 방법을 학습하게 하고 이에 기반해서 지리 정보를 찾고 찾는 정보를 과제 해결에 활용하도록 구성한 방식은 이후 학습에서 지도 활용 정보 탐색과 정보를 활용한 주제 학습을 실행하는 데 유의성을 지닌다 하겠다. 특히, 지도를 활용한 정보 탐색은 장소, 지역, 국가, 세계의 범주를 파악하고 그 안에 포함된 지리 정보를 폭넓게 획득하고 나아가서 장소, 지역, 국가들의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를 파악하여 장소, 지역, 국가, 세계에 대해 위치 지식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지리교육에서 정보 탐색의 매체를 지도 활용 이외에 그래프, 통계 자료, 텍스트, 사진, 그림, 영상 활용 그리고 직접 관찰과 조사 활동 등 다양한 정보 활용으로 확대하고, 찾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의 지리 교육과정 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학습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의 다양한 정보 탐색을 위한 매체 활용은 적실성을 지닌다 하겠다. 과거에는 주요 정보 매체로 지도의 역할이 독보적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도 매체를 보완하여 이들 다양한 정보 탐색 매체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반영한 지역의 내용 구성

지표상의 현상들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지리교육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하나는 지표상

의 현상은 변동성을 갖는다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적 시점에서 지표상의 현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행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첫 대단원에서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사회 변화 요인은 많지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장소, 지역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변동성을 갖는다는 인식을 갖고 이후 장소 및 지역의 생활 모습을 학습하도록 구성한 것은 유의성을 지닌다 하겠다.

다만,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통과 통신수단 등의 인문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크지만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오늘날 기후환경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학년 군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과 5·6학년 군 (1) 국토와 우리 생활 <국토의 자연환경>에서 제시한 자연환경과 생활과의 관계 부분에서는 과거의 일반적인 기후와 그에 따라 발달한 전통적인 생활 모습과의 관계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현재의 기후환경과 생활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기후환경에 의한 생활 모습의 변동성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시각을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할 뿐더러 현재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슈와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학습자가 이슈와 문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에 기초한 현실적 시각은 감정보다 사실에 입각하여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행한 노력과 이뤄낸 결과를 토대로 더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후세대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불평등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 보다는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와 경제 성장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Tallon, 2013; Standish, 2018:213에서 재인용). 사실에 기반한 문제 상황 인식은 왜곡된 정보와 사실에 의거한 부정적 시각을 차단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형성하며 더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광택(2018)은 미래 교육과정에서 학교 지리는 학습

자가 자신과 타인의 지역과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공감하며 서로 연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리교육은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핵심 역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은 적실성을 지닌다 하겠다. 3·4학년 군에서 학습하는 촌락과 도시 문제, 5·6학년 군에서 학습하는 지구촌 문제 학습에 대해 현행 교과서에서는 주로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문기사 갖는 시기성, 사실의 부분 기술, 신문기자의 관점 포함 등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이슈학습을 위해서는 교사의 추가적인 자료 준비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이슈 관련 내용 학습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포함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지리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이슈들이 지리교육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이슈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 제시하여 학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적정 기준에 의한 학습 대상 지역의 범주화 설정

지리교육에서 범주화에 따른 일반화는 주로 지표상의 장소와 지역 설정에서 이뤄진다. 장소와 지역의 범주화에 따라서 장소성과 지역성의 일반화 결과가 도출된다. 현행 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고향’, 4학년에서는 ‘촌락과 도시’로 지역을 범주화하여 우리고장의 특성, 촌락의 특성,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게 한다. 우리고장, 촌락, 도시는 지리에서 고정적으로 구획된 범주가 아니고 학습자의 생활 범위에 따라서 고향이 설정되고, 생산활동에 따라서 촌락과 도시 지역이 설정된다. 그래서 우리고장, 촌락과 도시의 범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로서 특성은 달라질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우리고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 교과서 서술내용을 보면 우리고장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일상생활 범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범위를 활용한다. 촌락과 도시의 범위에 대해서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어디에서도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경계로 군 단위 지역을 촌락, 시 단위 지역을 도시로 설정하여 촌락과 도시의 범위를 사용한다. 이러한 범위의 우리고장, 촌락과 도시의 범위를 사용하면서 우리고장의 장소감, 장소성, 촌락과 도시의 지역성을 파악하게 하는 지리 수업의 전개는 촌락과 도시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게 할 가능성을 갖는다. 촌락과 도시를 구성하는 각각의 마을은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촌락과 도시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학생들에게 촌락과 도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도시와 촌락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도시와 촌락의 특성과 가치를 찾지 못하는 본질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조현정, 2016).

우리나라 전체의 정주공간을 촌락과 도시라는 두 개의 지역으로 이분화한 만큼 촌락과 도시의 범위는 아주 광대하며 그 안에 내재된 다양성도 크다 하겠다. 특히 '비교하기'는 공통적인 특성, 유사한 구조, 통용되는 유사점이 없다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Haubrich *et al.*, 1997; 김재완 역, 2006)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주화와 이에 따른 일반화를 요구하는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5·6학년 군의 5학년 과정에서 학습하는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 별 위치적 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은 학습자 입장에서 탐구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특성을 찾는 것도 적정성의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6학년 2학기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이웃 나라들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부분에서도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범위는 광대하고 그만큼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학습 내용 구성에서는 특정 지역의 환경이 국가 전체의 환경으로 일반화되지 않게 학습되도록 해야 한다.

장소와 지역의 범주화는 특정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사회 변화에 따라 준거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장소와 지역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장소와 지역의 특성도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준거에 기반한 범주화와 그에 따른 일반화 결과를 도출하는 학습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자칫

범주화를 잘못하여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된 고정관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리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 및 지역의 범주화 설정은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비판적 사고활동을 포함한 탐구형 학습 과제 제시 및 적용

변화 속도가 빠르고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유일하게 사회과교육에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핵심역량에 포함하였다(교육부, 2015).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교육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보다는 내용에의 접근 방법에서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학습자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인지활동을 경험하면서 주제에 접근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다원, 2019). 학생들은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활동을 경험하고 비판적 사고기술을 발달시킨다(Burnett, 2020:26). 이러한 비판적, 창의적 인지활동에 기반한 학습은 가치, 신념, 태도 지향적인 시민성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의미있는 방법이다(조철기, 2020:368).

현행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과제들을 살펴보면, '~을 알아봅시다.' 형으로 서술된 과제들이 많이 보인다. '~을 알아봅시다.' 과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찾거나 전달 받는 학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극적인 탐구 학습이나 암기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현상과 다른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는 반드시 비판적 고찰이 포함되어야 합리적인 방향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적정의 정보를 찾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 변화를 분석하는 것, 적정 범주화와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것,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 등에는 모두 비판적 고찰과 사고활동이 포함된다 하겠다. 그리고 비판적 고찰은 주제를 학습할 때 학생의 학습활동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인지활동이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적절한 수업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V. 결론

Brownhill(1983, 김인용·김희용 역, 2013)은 세상을 구체적인 전체로 보기보다는 '경험의 포로'를 통하여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고는 판단이며, 판단은 대상에 대한 해석의 틀을 통해 이뤄지며, 이러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일 것이다. 해석의 틀이 객관적인 인식틀로 자리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여기에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의 변화상과 복잡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 대한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고정관념과 편견,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방법으로 객관적 인식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초등 지리교육 내용은 고장, 지역, 국가, 세계 등 장소와 지역에 대한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소와 지역의 지리적 현상과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실재성, 합리성, 공공성에 기반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인식에 의거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형성에서 지리교육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에서 객관적 인식을 위한 교육 방법을 논의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현행 2015개정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를 토대로 향후 고려되어야 할 지리교육과정 내용 구성안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보탐색을 위한 활용 매체의 다양화와 활용의 적극적 확대이다. 지리교과에서는 GIS, 지도, 영상, 그래프, 현장답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탐색 및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지리교과 특성을 살려서 현재 지도 활용 중심에서 다른 매체 활용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 변화와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한 내용 구성이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과거의 모습과 사실에 대한 학습은 특성을 보여주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장소, 지역, 환경의 전체적 특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에 주목해서 현재의 모습을 함께 살피게 하는 지리교육을 생각해야 한다. 지구적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를 성찰하고 재정향 할 시급한 시점에 있

다(이간용, 2020). 셋째, 적정 기준에 의한 범주화와 일반화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기준에 의한 범주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리교과에서 주로 행하는 범주화는 지역구분이다. 지역 구分的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기준에 의해 지역을 구분했을 때도 지역 구分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적정 지역 구분이 이뤄졌을 때 범주화에 따른 일반화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판적 사고의 적극적 활용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유일하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사회과 교과 역량에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과교육에서 이에 대한 교육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겠다. 지리적 사실에 비판적 사고 활동이 포함될 때 지리적 사실이 단편의 정보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더불어서 지리적 지식과 지리적 관점을 형성하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리교육은 글로벌 사회의 이해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교과로, 지리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거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재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를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갖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글로벌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사고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은 인지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습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가지는 주관적인 느낌은 글로벌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지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과 해석이 이뤄졌을 때 합리적이고 지리적인 사고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향후 초등 지리교육에서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제안을 반영한 교육의 실천은 적실성과 시급성을 지닌다 하겠다. 지리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리 교육은 다음 세대에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방식을 전하는 기획이며 이것은 지리교육을 행하는 사람의 영광이자 큰 책임이라는 의견(Enser, 2019)에 동의하며, 본 방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안, 2014, “객관성” 철학과 현실 103(겨울호), 142-157.
- 교육부, 2015, 「초·중등 사회과교육과정」, <http://ncic.re.kr> (2021년 3월 15일 접속).
- 교육부, 2018a, 「사회 3-1」.
- 교육부, 2018b, 「사회 3-2」.
- 교육부, 2018c, 「사회 4-1」.
- 교육부, 2018d, 「사회 4-2」.
- 교육부, 2019a, 「사회 5-1」.
- 교육부, 2019b, 「사회 6-2」.
- 김다원, 2019, “초등 「사회」 교과서 지리영역 탐구형 학습과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3), 53-64.
- 김다원·한건수, 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보기-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아프리카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3), 440-458.
-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 류재명, 2000, “지리교육과 삶의 질: 21세기 지리교육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35(2), 341-349.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09804&cid=42126&categoryId=42126>(2021년 3월 20일 접속).
- 송언근·정혜정, 2012, “비조작 자료의 조작을 통한 사회과 비판적 사고력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1-22.
- 심광택, 2018, “초기와 현행 사회과 지리 교과서에 반영된 지역인식과 지역기술 다시 보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59-71.
- 이간용, 2020,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평가 특성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125-144.
- 이경한, 2020, “대학생의 세계지리 위치 정보에 관한 이해” 초등교육연구, 31(1), 27-51.
- 이명현, 1987, “객관성의 토대에 관한 성찰” 철학, 28, 93-109.
- 이종원, 2011,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모듈의 개발과 평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381-397.
- 장사형, 1996, “인식의 객관성과 교육” 교육철학, 14, 187-202.
- 조성욱, 2018,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인식 변화를 위한 지리교육과정 구성 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73-87.
- 조철기, 2020, 「시민성의 공간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 조현정, 2016, “초등 사회과교과서의 도시와 촌락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사회과교육연구, 23(1), 41-56.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파주: 학지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43990&cid=41989&categoryId=41989>(2021년 3월 20일 접속).
- Alock, D., 2019, Optimism, progress and geography-celebration and calibration, *Teaching Geography*, 44(3), 118-121.
- Betty, A.R., 1988, *Comprehensive Peace Education: Educating for Global Responsibil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강순원 역, 2021, 「포괄적 평화교육」, 서울: 살림터).
- Brownhill, R.J., 1983,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London: Croom Helm(김인용·김화용 역, 2013, 「교육과 지식의 본질」, 파주: 교육과학사).
- Burnett, L., 2020, Our complex world, *Primary Geography*, 101, Spring, 26-27.
- Dewey, J., 1910, *How we think*, New York: Dover Publications(정희욱 역, 2011, 「하우 위 싱크: 과학적 사고의 방법과 교육」, 서울: 학이시습).
- Duffy, B., 2018, *The Perills of Perception*, London: Atlantic Books(김하연 역, 2019, 「팩트의 감각」, 서울: 어크로스).
- Enser, M., 2019, *Making every geography lesson count*, UK, Wales: Crown House Publishing.
- Haubrich, H., Kirchberg, G., Brucker, A., Engelhard, K., Hausman, W., and Richter, D., 1997, *Didaktik Der Geographie Konkret*, München: Oldenbourg Verlag GmbH(김재완 역, 2006, 「지리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파주: 한울 아카데미).
- Liu, S. and Zhu, X., 2008, Designing a structured and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GIS for secondary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107(1), 12-19.
- Manyinka, J. and Varian, H., 2009, *Hal Varian on how the web challenges managers*, Retrived from <https://>

- www.mckinsey.com/industri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our-insights/hal-varian-on-how-the-web-challenges-managers.
- Roberts, M., 2013, *Geography through Enquiry- Approaches to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econdary school*, Sheffield: The Geographical Association(이종원 역, 2016, 「탐구를 통한 지리학습」, 서울: 푸른길).
- Rosling, H., Rosling, O., Rosling Rönnlund, A., 2018, *Factfulness: Ten Reasons We're Wrong About the World and Why Things Are Better Than You Think*, New York: Flatiron Books(이창신 역, 2020, 「팩트풀니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파주: 김영사).
- Standish, A., 2012, *The false promise of global learning*,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Inc.(김다원 역, 2020, 「글로벌학습의 잘못된 약속」, 서울: 살림터).
- Standish, A., 2018, Teaching about development in a post-development society: the case of geography,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7(3), 199-215.
- Standish, A., 2020, Time for geography to catch up with the world, *Geography*, 15(3), 135-141.
- Tallon, R., 2013, What do young people think of development?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s young people make from NGO media, Ph. D. Disserta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Trafton, A., 2014, In the blink of an eye, MIT News, Jan, 16, 2014, <https://news.mit.edu/2014/in-the-blink-of-an-eye-0116>.
-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2021. 3. 17일 접속).
- 교신 : 김다원,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veritas2@gnue.ac.kr)
- Correspondence : Dawon Kim, 61204, 55 Philmundae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veritas2@gnue.ac.kr)

투고접수일: 2021년 3월 22일

심사완료일: 2021년 4월 8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4일